

# 求古樓展觀의 활동과 그 영향\*

- 19세기 일본 판본학의 시작과 中日書籍交流 -

이유리\*\*

1. 서론
2. 求古樓展觀의 활동
  - 1) 활동 시기
  - 2) 주요 참가자 및 出陳書
3. 『經籍訪古志』를 통해 본 모임의 내용
  - 1) 求古樓展觀 이후의 고서 모임과 『경적방고지』의 편찬
  - 2) 서지 기술 방식을 통해 본 고서 조사 방법
  - 3) 판본 감별에 대한 논의
4. 『經籍訪古志』와 楊守敬의 葦書
5. 결론

## 1. 서론

일본에서 서지학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明治시대 이후로, 이 용어에서 연상되는 의미는 판본학에 가깝다.<sup>1)</sup> 판본학은 서적이 발행된 시대에 따른 형태와 그 특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발원은 청대 고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중국의 서적 문화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는 목록학이 발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인문한국사업단 제 31회 HK워크숍 “동아시아 문헌학과 문헌학자 II”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1) 高橋智, 2011 『書誌學のすすめ—中國の愛書文化に學ぶ』, 東方書店, 9면.

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대에 들어와서 추상적인 성리학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증학을 통해 실학을 표방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고문헌의 역할 역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그 지식의 연원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고문헌 자체에 대한 고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의 성립 시대나 위조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서적의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명대에 고전의 출판이 부흥하면서 宋本의 覆刻 혹은 模刻이 많이 이루어진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sup>2)</sup> 이처럼 학술 경향의 변화는 고문헌의 역할에도 파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청대를 전후로 하여 편찬된 목록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변화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17세기 말이 되면 중국의 영향으로 고증학적 연구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를 비롯한 고학파의 학문은 고서의 텍스트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야마노이 데이(山井鼎, ?~1728)는 스승인 오규 소라이의 명을 받아 고판본이 많이 남아 있는 足利學校에 가서 『易經』부터 『孟子』까지 여덟 종류의 경전에 대한 몇십 종의 텍스트를 하나하나 비교하였다. 『七經孟子考文』은 그 성과이며, 阮元의 『十三經注疏校勘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이 되면, 이노우에 긴가(井上金峨, 1732~1784) · 나카이 리켄(中井履軒, 1732~1817) · 요시다 고톤(吉田篁墩, 1745~1798) 등에 의해 문헌 고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가리야 에키사이(狩谷棟齋, 1774~1835)는<sup>3)</sup> 일본의 문헌학을 집성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와 절친했던 요시다 고톤과 함께 자료의 감별 · 본문의 교감 · 내용의 고증을 근간으로 하는 교감학의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博士

2) 楊軍, 2011 『明代翻刻宋本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면.

3) 에도 후기 교감학자 · 서지학자 · 장서가 · 서적상. 후에는 米穀商이 되었는데, 잘 알려져 있는 이름 望之, 자 卿雲, 호 棟齋는 미곡상이 된 이후에 바꾼 것이다. 1774년 江戶 神田坂下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서적상인 高橋高敏으로, 1790년 가업을 이어 받았으나, 9년 후 狩谷保古의 養子가 되었다. 知友인 吉田篁墩의 고증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감학을 대성하였다. 北宋刊 『御註孝經』 등을 影模 간행하였고, 『日本國現在書目証注稿』 등을 저술하는 등, 일본 서지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이상의 내용은 柏崎順子, 1999 「狩谷棟齋」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岩波書店, 124면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

家의<sup>4)</sup> 舊鈔本과 宋元本, 조선본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장서를 바탕으로 고서에 대한 감식안을 길렀다. 그리고 그는 고톤의 유지를 계승하여 다른 장서가들과 함께 모임을 열어, 판본 감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판본학의 기초를 다졌다. 규코로텐칸[求古樓展觀]은 에키사이가 개최한 일본 최초의 고서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축적된 판본학적 성과는 『經籍訪古志』라는 목록의 편찬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목록을 통해 당시 일본에 전준하고 있었던 고서와 그 소재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지 기술 및 판본학적 고찰 방식은 이후에도 계승·발전되어 현재의 서지학 연구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楊守敬(1839~1915)은 이 목록을 참고하여 많은 고서를 수집하였고, 그중 다수가 현재 중국과 대만에 각각 귀중본으로 보전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헌 연구사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귀중서의 流轉 양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코로텐칸을 비롯한 고서 모임과 『경적방고지』의 편찬, 그리고 양수경의 고서 수집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모임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전하는 바가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참여자들이 관여한 『경적방고지』의 내용을 통해서, 고서의 조사 및 판본 감별에 대한 논의와 같은 최소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목록이 양수경에게 미친 영향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에도 후기 문헌학 연구의 동향과 메이지 초기의 중일서적교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2. 求古樓展觀의 활동

규코로텐칸은 에키사이가 주최한 고서 모임이다. 참여자는 에도에 있는 에키사이의 거처에서 각자 소장하고 있는 古版本 및 古抄本을 가져와 함께 보면서

4) 平安시대 이후 大學寮의 교관인 博士를 대대로 세습하던 집안이다. 역사와 문장을 담당했던 紀傳道와 經學을 담당했던 明經道 등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집안에는 菅原·大江氏가 있고, 후자에는 中原·清原氏가 있다.

의견을 나누었다. ‘求古樓’는 에키사이의 호이기도 하다.

3장에서 살펴볼 『경적방고지』의 서문에서 가이호 교손[海保漁村]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요시다 고톤의 유지를 에키사이가 계승하여 시작된 모임으로,<sup>5)</sup>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서지학 연구회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최초 성립과 존속 기간, 모임 횟수, 진행 방식 등 모임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이때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求古樓展觀書目』 등의 기록으로 이 모임의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 1) 활동 시기

이 모임이 정확히 언제 성립되어 언제까지 지속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에키사이와 이자와 란켄[伊澤蘭軒]의 문인인 고야마 요시토[小山吉人]가 분담하여 필기한 『求古樓展觀書目』에는 모임이 열린 날짜와 出陳書가 적혀 있는데, 각 서적에 대해 서명·소장자·版式 혹은 寫式·刊記·識語·印記, 그리고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sup>7)</sup> 따라서 이 목록을 통해 언제 누구의 어떤 책을 보았는지 알 수 있다.

니시오시립도서관[西尾市立圖書館] 이와세문고[岩瀨文庫] 소장 『卿雲輪因附錄』(全4冊)에는 「求古樓展觀第一」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덧붙여서 철한 文化 13년(1816) 3월 15일의 내용이 있다. 이 책의 제1책에서 제2책 19張裏까지 「求古樓展觀第一」이라는 제목으로 文化 12년 5월 7일·6월 7일·7월 7일·8월 7일·9월 10일·10월 10일(총 6회분)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 제3책 16張裏까지 앞의 「求古樓展觀第一」 중 3회분(5월·6월·7월)의 출진서 목록이 있으며, 같은 책 제17張表부터 제21張裏까지 같은 해 12월 14일의 기록이 있다. 그 뒤에는 후대에 덧붙여져 합침된 것으로 추정되는 文化 13년(1816) 3월 15일의 목록이 있다. 날짜로 보아 원래 『求古樓展觀第二』

5) 海保漁村, 『經籍訪古志』『經籍訪古志序』“蓋以笪墩吉田學生爲首唱, 而藏書亦頗富, 繼而起者, 爲核齋狩谷卿雲。” 이 글에서 인용한 『經籍訪古志』의 원문 및 표점은 杜澤遜·班龍門點校本(2014, 上海古籍出版社)를 따랐다.

6) 柏崎順子, 1999 「濫江抽齋編『卿雲輪因附錄』」『言語文化』36, 62-63면.

7) 柏崎順子, 1999 「求古樓展觀書目」『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岩波書店, 149면.

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求古樓展觀書目第二』는 安田文庫에 소장되고 있었으나, 2차 대전으로 소장본 전체가 산일되면서 현재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가와세 가즈마[川瀬一馬]가 작성한 『安田文庫目錄』을 통해, 당시 소장하고 있던 책에는<sup>9)</sup> 文化 13년(1816) 正月 30일 · 6월 13일, 閏8월(날짜 미상), 총 3회분이 실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관련 기록에 기재된 모임 날짜

소장처	제목	수록면	모임 연도	날짜
岩瀬文庫	『求古樓展觀第一』 (『卿雲輪園附錄』내)	제1책 ~ 제2책 제19張裏	文化 12년 (1815)	5월 7일 · 6월 7일 · 7월 7일 · 8월 7일 · 9월 10일 · 10월 10일 (총 6회)
		제3책 首 ~ 16張裏		위의 5월 7일 · 6월 7일 · 7월 7일(일부 내용 누락) (총 3회)
		제3책 제17張表 ~ 제21張裏		12월 14일
	(後綴)	제3책 제22張表 ~ 제3冊末	文化 13년 (1816)	3월 15일
舊安田文庫	『求古樓展觀第二』	全冊에 걸쳐 수록		정월 30일, 6월 13일, 윤8월 (총 3회)

이를 통해, 적어도 文化 12년 5월부터 이듬해 윤8월까지 총 11회의 모임이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실린 내용이 이 모임의 모든 회차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sup>11)</sup> 가와세 가즈마는 전해지는 기록 중 가장 늦은 文化 13년 윤8월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sup>12)</sup>

8) 梅谷文夫, 1994 『狩谷栢齋』, 吉川弘文館, 121면.

9) 安田文庫本은 가와세 가즈마의 목록을 통해 당시 한 책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栢崎順子는 『卿雲輪園附錄』의 원래의 내용은 이와세문고본의 제1~3책과 야스다문고[安田文庫] 본 한 책을 합한 총4책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柏崎順子, 1999 「瀧江抽齋編『卿雲輪園附錄』」『言語文化』 36, 63면).

10) 川瀬一馬, 1937 「安田文庫書目-自筆本の部(其の2)」『椎園』 1, 52면.

11) 梅谷文夫, 앞의 책, 106면.

12) 川瀬一馬, 앞의 논문, 52면.

## 2) 주요 참가자 및 出陳書

앞에서 살펴본 자료를 통해 주요 참가자와 서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직접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표 2〉 날짜별 出陳者 및 出陳書의 수

순번	연도	날짜	출진자(점수)
1	文化 12년 (1815)	5월 7일	狩谷校齋(7) 多紀元賢(7) 山本宗英(2) 曲直瀬正隆(2) 小島寶素(1) 小山吉人(1) 市野迷庵(1) 屋代弘賢(4) 河井(河合)白水(1)
2		6월 7일	狩谷校齋(10) 伊澤蘭軒*(3) 鹽田屯*(1) 増島蘭園*(1) 市野迷庵(4) 屋代弘賢(6) 多紀元賢(3) 曲直瀬正隆(4) 小島寶素(1) 小山吉人(1)
3		7월 7일	狩谷校齋(5) 余語古庵*(1) 河野良以*(1) 市野迷庵(3) 屋代弘賢(1) 伊澤蘭軒(4) 多紀元賢(11 · 版木2枚) 曲直瀬正隆(?) 山本宗英(?)
4		8월 7일	狩谷校齋(3) 多紀元賢(9) 昌平坂學問所*(2) 미상(5)
5		9월 10일	狩谷校齋(5) 昌平坂學問所(3) 市野迷庵(3) 伊澤蘭軒(2) 多紀元賢(3) 屋代弘賢(2) 余語古庵(1) 山本宗英(1)
6		10월 10일	狩谷校齋(7) 小島成齋*(1) 太田全齋*(1) 湯川柳男*(1) 曾根■*(1) 市野迷庵(4) 伊澤蘭軒(3) 屋代弘賢(2) 多紀元賢(2) 余語古庵(5)
7		12월 14일	狩谷校齋(8) 市野迷庵(2) 伊澤蘭軒(2) 多紀元賢(3) 余語古庵(2) 小島寶素(2)
8	文化 13년 (1816)	정월 30일	狩谷校齋(13) 市野迷庵(8) 多紀元賢(4) 伊澤蘭軒(2) 掛川藩*(2)
9		3월 15일	狩谷校齋(1) 足利學校*(2) 屋代弘賢(5) 多紀元賢(4) 市野迷庵(2) 小島寶素(2※1점은 國書) 미상(10)
10		6월 13일	狩谷校齋(3) 近藤重藏*(9) 多紀元賢(1) 市野迷庵(3)
11		윤8월	狩谷校齋(16) 小島寶素(2) 醫學館*(2)

\* 이름 뒤 \*표기는 첫 출진자.

〈표 2〉를 통해, 주최자인 에키사이가 가장 많은 출진서를 내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막부 설립 의학관과 昌平坂學問所, 足利學校, 그리고 藩의 장서도 열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이들을 직업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3) 아래의 〈표 2〉는 梅谷文夫, 앞의 책, 106-124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각 출진서의 내역을 에키사이 외에는 모두 밝히고 있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14) ①③의 내용은 長澤孝三 編, 2011 『改訂增補漢文學者總覽』, 汲古書院을 주로 참고하였다.

① 儒者

- 이치노 메이안(市野迷庵, 1765~1826) : 에도 간다[神田]에서 전당포 운영, 林述齋와 교유, 만년에는 松崎廉堂 · 가리야 에키사이 등의 영향으로 주자학에서 고증학으로 전환함

② 의사 혹은 그 관련인

- 다키 겐켄(多紀元賢, 1795~1857) : 막부 의사, 의학관의 충재였던 安長元簡의 五男
- 야마모토 소에이[山本宗英] : 막부 의사
- 고지마 호소(小島寶素, 1797~1849) : 막부 의사
- 이자와 란肯(伊澤蘭軒, 1777~1829) : 福山藩의 藩醫, 에키사이와 교유
- 마나세 세이류[曲直瀬正隆] : 막부 의사, 曲直瀬正琳의 후손
- 고야마 요시토[小山吉人] : 이자와 란肯의 문인, 막부 의사, 에키사이 조수
- 시오타 다무로[鹽田屯] : 太田全齋의 조카
- 요고 고안[余語古庵] : 막부 의사
- 가와노 료이[河野良以] : 막부 의사
- 유카와 류오[湯川柳男] : 막부 의사, 겐켄의 속부

③ 幕臣 및 家臣 혹은 그 자손

- 야시로 히로카타(屋代弘賢, 1758~1841) : 에도 출신, 고증학자이자 장서가  
(不忍文庫)
- 가와이 하쿠스이[河合白水] : 姫路藩 家老, 多紀家와 친분이 있음
- 고지마 나리사이(小島成齋, 1796~1862) : 福山藩士, 晉 · 唐의 서법 및 문자학
- 오타 젠사이(太田全齋, 1759~1829) : 에도 출신, 福山藩士, 에도 후기 대표적인 절충학파, 음운학
- 마스지마 란엔(増島蘭園, 1769~1839) : 에도 출신, 昌平坂學問所의 교수에서 막부 유관이 됨, 御書物奉行인 増島藤之助(信道)의 장남
- 곤도 주조(近藤重藏, 1771~1829) : 에도 출신, 막부 도서관인 紅葉山文庫의 御書物奉行

#### ④ 기관 및 蕃

- 昌平坂學問所
- 足利學校
- 醫學館 : 다카 겐켄이 출진했을 것으로 보임
- 福山藩 : 이자와 란肯 등 후쿠야마번 출신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임
- 掛川藩 : 마쓰자키 고도(松崎慊堂, 1771~1844)가 빌려 온 것으로 추측

#### ⑤ 미상

- 曾根■ : 미상<sup>15)</sup>

출진자들을 통해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고서를 갖고 있던 주요 인물과 장소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모임의 참가자들은 주최자가 에키사이인 만큼, 그의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그의 스승인 야시로 히로카타[屋代弘賢]와 교유관계였던 이치노 메이안[市野迷庵]·이자와 란肯[伊澤蘭軒]이 참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마쓰자키 고도[松崎慊堂]는 기록에 보이지 않으나, 그가 소속하고 있던 가케가와번[掛川藩]의 장서가 확인되므로 그 역시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후쿠야마번[福山藩]의 고지마 나리사이[小島成齋]나 오타 젠사이[太田全齋] 등의 인물은 같은 번에 있었던 이자와 란肯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후에 다룰 시부에 주사이(瀧江抽齋, 1805~1858)는 에도 출신으로, 고증학은 이치노 메이안에게, 의학은 이자와 란肯에게 배웠고, 모리 럭시(森立之, 1807~1885)는 후쿠야마번 출신으로 고증학은 에키사이, 의학은 이자와 란肯에게 배웠다.

한편, 대대로 막부 의사로 장서를 수집하고 있던 다카 겐켄[多紀元賢]은 쇼군과 그 가족들의 주치의였던 奥醫師이자 의학관의 총재였던 안초 모토야스[安長元簡]의 다섯 째 아들이었는데, 대대로 수집해온 장서의 과반을 상속하였다. 그 또한 에키사이와 메이안, 호소, 그리고 란肯과 교유하고 있었음을 그가 쓴 『경적방고지』의跋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16)</sup>

15) 梅谷文夫는 「曾根書庫」라는 장서인의 주인인 曾根懶齋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6) “壯歲與迷菴校齋諸老遊，徧閱其所藏舊笈。又與寶素蘭軒交，相與鑑別書之雅俗。”

이들은 대체로 에도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상인 출신 유학자나, 막부 소속 의사가 많았다. 전자에는 가리야 에키사이·마쓰자카 고도·이치노 메이안이 해당되는데, 이는 중국과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계층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대부층으로 정해져 있고, 사고의 범주는 통치 이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에서는 경제력이 있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학문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러한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들은 풍족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자신의 장서를 구축하여 학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밖에 養安院藏書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나세 쇼린[曲直瀨正琳]의 후손 마나세 세이류[曲直瀨正隆]와 막부 도서관인 紅葉山文庫의 관리이자, 에도 후기 문헌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곤도 주조[近藤重藏]도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모임에서 전람한 서적에는 북송간본 『孝經』, 남송 建安刊本 『史記』·『漢書』·『後漢書』, 應永 9년(1402)에 필사된 『論語集解』, 寶龜 원년(770)에 인쇄된 『無垢淨光經相輪陀羅尼』(百萬塔陀羅尼), 남송간본 『謝幼槃文集』, 明刊北宋岳家刊本 『春秋經傳集解』, 남송 건안 萬卷堂刊 『王狀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 至元 4년(1338) 日新堂刊 『春秋集傳釋義大成』 등이 있다. 이들 서적은 경서와 의서를 주로 하여 四部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또한 刊寫 시대 및 판종은 대체로 宋元本을 중심으로 그것을 복제·모방한 明刊本 등의 중국본과 일본 근세 이전의 구초본이었는데, 『文選』·『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韓詩外傳』 등과 같은 조선본도 있었다. 참석자가 각자 그날그날 책을 가져오면, 에키사이가 그 중에서 직접 골랐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따라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과 책의 수는 기록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竹村英二, 2016 『江戸後期儒者のフィロロギ』, 思文閣出版, 5-6면.

18) 梅谷文夫, 앞의 책, 106면.

### 3. 『經籍訪古志』를 통해 본 모임의 내용

규코로텐칸 이후에도 주요 참여자들 중심으로 고서 모임을 이어나갔다. 『경적방고지』의 편찬과 교정은 바로 이들이 관여하고 있어, 그 내용은 그간의 모임을 통해 얻은 성과가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코로텐칸 등의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해도, 『경적방고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서를 조사하고, 또 감별할 때 어떠한 판본학적 지식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활동 내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적방고지』의 목록 기술 방식과 고서 감별에 활용된 판본학적 지식 및 감식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求古樓展觀 이후의 모임과 『경적방고지』의 편찬

에키사이이는 그의 만년에 다카 ゲンケン · 시부에 주사이 · 모리 럿시 · 고지마 나리 사이 등과 함께 ‘古書會’라는 漢籍 고판본 및 고초본 연구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고 하나, 상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sup>19)</sup>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유언에 따라 규코로텐칸 때부터 주요 회원이었던 다카 ゲンケن은 에도의 별저에서 주사이와 럿시를 간사로 하여 매월 ‘訪古會’라는 모임을 열어 이전과 같이 고서의 조사 연구를 이어나갔다.<sup>20)</sup> 이때의 활동 모습은 모리 럿시의 「經籍訪古志跋」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등글게 앉아 고서를 펼쳐 놓고 보면서 논의를 하고, 끝나면 뒷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sup>21)</sup>

『경적방고지』는 일반적으로 그간의 고서 모임의 성과를 집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목록은 安政 4년(1857)까지 三稿本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진행된 바

19) 梅谷文夫, 앞의 책, 124면.

20) 川瀬一馬, 1980 「經籍訪古志の成立：特に初稿本以前について」『續日本書誌學之研究』, 雄松堂, 644면.

21) “此輩毎月一二次豫卜夜而會于綠汀。綠汀者，本所綠町多紀樂春院〈元堅〉之別莊也。諸子環坐，披閱古本，爲之論定會。會後開宴，各乘醉而歸，二州橋上踏月詠詩。此是三十年前之事。”

가 없었다. 그런데 방일 중이던 姚文棟(혹은 子梁, 1853~1929)이 徐承祖에게 이 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서승조가 모리 릿시에게 출판을 재촉하자, 모리 릿시는 다시 교정을 보았고, 서승조의 서문을 실어 출판하였다.<sup>22)</sup> 현재 초고본과 재고본은 天理大學 도서관에 있고, 삼고본은 소재가 불분명하다.<sup>23)</sup>

이 목록의 편찬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시부에 주사이와 모리 릿시의 「經籍訪古志附言」에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에키사이로부터 빌단해서 고지마 호소가 확충하고, 다카 겐켄의 독려로 주사이와 릿시가 호소의 아들과 이자와 란肯의 아들의 협력을 받아 편집 작업을 하였으며, 가이호 교손이 교정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sup>24)</sup>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실제 편찬은 주로 모리 릿시가 하되, 시부에 주사이도 다소 참여하였고, 가이호 교손이 초고를 손보았다. 二稿 이후는 그의 의견 따라 모리 릿시가 필삭을 더하였는데, 이때부터 교손의 의견에 따라 『天祿琳琅書目』과 『愛日靜廬藏書志』의 체례를 모방하였다. 그리고 1856년 삼고가 완성됨에 이르러 다카 겐켄과 가이보 교손 등의 서발문을 실었고, 이듬해에 고지마 나오카타(小島尙眞, 1797~1849) 등에 의해 淨書되면서 완성되었다.<sup>25)</sup>

이처럼 『경적방고지』의 편찬은 일련의 모임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록된 서적 중 간사이[關西] 지방 소재본의 다수는 고지마 호소와 가이호 교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임의 주최자였던 에키사이와 다카 겐켄이 거주하고 있던 에도에서 모임이 열렸기 때문에 간사이 지역의 고서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호소와 교손은 天保 13년(1812) 9월부터 12월까지 간사이 지방에 가서 고서 조사

22) 高橋智, 앞의 책, 216면.

23) 相崎順子, 1999 「經籍訪古志」『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岩波書店, 181면.

24) 『經籍訪古志』「經籍訪古志附言」“丹波筐庭先生深慨古本之日就湮晦，督促余二人者，俾亟從士于斯。復獲寶素君嗣子抱沖君，以其所得庭聞互相考覈，用功精密，每倍蓰余二人者，以故不久就緒。又有伊澤磐安，以所聞其先人蘭軒先生相商權。既成就正於海保鄉老點訂之，可以得而傳焉。”

25) 이상의 내용은 長澤規矩也, 1935年 11月 「『經籍訪古志』考 (下)」『圖書館雜誌』, 379면을 참고하였다. 그밖에 『경적방고지』의 稿本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長澤規矩也, 1935年 10月 「『經籍訪古志』考 (上)」『圖書館雜誌』; 川瀬一馬, 1980 「經籍訪古志の成立：特に初校本以前について」『續日本書誌學之研究』, 雄松堂書店。

를 하였고, 그 결과로 서지 목록인 『河清寓記』와 그 중 선본을 臨模한 『古本留眞譜』를 남겼다. 『경적방고지』에 수록된 간사이 지방 소재본 중 『하청우기』에 저록된 것이 약 80부, 『고본유진보』에 10부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서적에 대해서는 이 두 자료가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6)</sup>

또한 『경적방고지』에는 『卿雲輪困附錄』에 수록된 규코로텐칸에서의 논의 내용이 인용되거나,<sup>27)</sup> 에키사이의 견해가 적힌 발문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찬과 관련된 다키 겐켄과 고지마 호소, 이자와 란肯은 규코로텐칸 때부터 활동한 인물들이며, 모리 릿시는 에키사이의 제자이다. 따라서 『경적방고지』에 반영된 고서의 조사 방식과 판본 감별에 필요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에키사이를 계승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내용의 구성은 사부분류법에 따른 본편 6권(경부2권·사부1권·자부2권·집부1권) 6책이 있고, 부록으로 醫部 2권 2책이 있다.<sup>28)</sup> 의부를 따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의서의 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경부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서류의 대부분이 일본 근세 이전 구초본이다. 이는 근세 초까지 박사가를 중심으로 경서의 본문 해석에 비중을 둔 학술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26) 町泉壽郎, 1998 「小島宝素・海保漁村の天保十三年の京都訪書行―『經籍訪古志』成立の一過程―」『東方學』96, 113면. 참고로 릿시가 직접 傳寫한 『하청우기』는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191-743).

27) 『經籍訪古志』卷1, 「經部上-易類」“纂圖互注周禮六卷. (中略) 義世會求古樓展觀古籍實文化乙亥五月七日也時, 屋代輪池翁出其所藏周易六卷本以相示. 其書每半葉八行, 行十六字, 界長六寸九分, 幅五寸四分半. 每卷末有經注字數, 卷首有照善院墨印. 但未詳其鈔寫年月. 事錄在卿雲輪困錄中, 不知其書今歸於何人.”

28) 각 부류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經部(204점) - 易類:25점, 書類:17점, 詩類:18점, 禮類:23점, 春秋類:22점, 孝經類:13점, 四書類:42점, 樂類:3점, 小學類:41점

◎史部(98점) - 正史類:41점, 編年類:13점, 紀事本末類:1점, 別史類:11점, 雜史類:11점, 傳記類:3점, 史鈔類:2점, 載記類:3점, 地理類:3점, 職官類:2점, 政書類:6점, 目錄類:1점, 史評類:1점

◎子部(143점) - 儒家類:29점, 兵家類:10점, 法家類:4점, 農家類:3점, 天文算法類:3점, 術數類:5점, 譜錄類:2점, 雜家類:24점, 類書類:35점, 小說類:14점, 釋家類:26점, 道家類:24점

◎集部(110점) - 楚辭類:5점, 別集類:71점, 總集類:34점 ◎醫部(180점)

## 2) 서지 기술 방식을 통해 본 고서 조사 방법

『경적방고지』가 기존의 서목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책의 형태사항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 목록에 기재된 각 서적은 그 기술 항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아래의 범주 안에서 기술되어 있다.<sup>29)</sup>

- ① 서명, 권수, 성립연대 및 판종, 소장자
- ② 결권 혹은 현존 책수
- ③ 권수 이전 수록 목차
- ④ 권수제 및 본문 첫 행(경우에 따라 제2~3행도 저록)
- ⑤ 삽도가 있는 경우 제목 나열
- ⑥ 훈점 및 주·목서
- ⑦ 판식(광곽형태·행자수·광곽크기·계선유무 등)
- ⑧ 缺筆 및 經注의 글자수 유무
- ⑨ 刊記
- ⑩ 印記
- ⑪ 紙質 및 墨光
- ⑫ 글자체

字注雙行界長六寸八分弱幅四寸三分弱四		本行文款同與卷首題書卷第一朱子訂定蔡氏集傳		二十行十一字行		四年陳櫟序每十行行上行		首有嘉定己己武夷蔡沈序每半版九行		平學有足本正與此本同		書集傳纂疏六卷元繫本		弱每卷首有仁和寺真光院及真光院二印昌		二十二字注雙行界長六寸三分幅四寸四分	
後學新安陳櫟纂疏每半版十一行行二十一	字注雙行界長六寸八分弱幅四寸三分弱四	本行文款同與卷首題書卷第一朱子訂定蔡氏集傳	本行文款同與卷首題書卷第一朱子訂定蔡氏集傳	二十行十一字行	二十行十一字行	四年陳櫟序每十行行上行	四年陳櫟序每十行行上行	首有嘉定己己武夷蔡沈序每半版九行	首有嘉定己己武夷蔡沈序每半版九行	平學有足本正與此本同	平學有足本正與此本同	書集傳纂疏六卷元繫本	書集傳纂疏六卷元繫本	弱每卷首有仁和寺真光院及真光院二印昌	弱每卷首有仁和寺真光院及真光院二印昌	二十二字注雙行界長六寸三分幅四寸四分	二十二字注雙行界長六寸三分幅四寸四分

〈그림 1〉『경籍訪古志』 卷1 ‘書類’ 중

周易六卷明應間鈔本		魏王弼注第一卷缺第二卷首題周易上經泰		傳第二王弼注每卷末不書經注字數欄上層		格內有國字鈔記每卷末朱書誓譽二字蓋卽		卷中朱點人云每半葉七行行十六字界長六		寸八分幅四寸九分		又永正間鈔本求古樓藏		周易六卷明應間鈔本		經籍訪古志卷第一	
周易六卷明應間鈔本	經籍訪古志卷第一	魏王弼注第一卷缺第二卷首題周易上經泰	傳第二王弼注每卷末不書經注字數欄上層	格內有國字鈔記每卷末朱書誓譽二字蓋卽	卷中朱點人云每半葉七行行十六字界長六	寸八分幅四寸九分	又永正間鈔本求古樓藏	周易六卷明應間鈔本	經籍訪古志卷第一	周易六卷明應間鈔本	經籍訪古志卷第一						

〈그림 2〉『경籍訪古志』 卷1首

위의 항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반엽 광곽의 크기가 수치로 기재되어

29) 본문의 〈그림 1〉, 〈그림 2〉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메이지 연간 간행 추정 일본 연활자본이다(청구기호: 古古10-50-43).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고서를 조사하는 방법이 실증적이었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로, 현재까지 알려진 『경적방고지』 이전의 서목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sup>30)</sup> 또한 ④번은 권수제와 본문 첫 부분을 옮겨놓은 부분에 대한 항목으로, 동일 서명의 서적에 대하여 형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비교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서적에 대한 기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명과 권수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판종과 소장자를 적었다. 그리고 서적마다 순서에 차이는 있으나 대개 권수제 및 목차, 版·寫式의 형태와 크기를 적었다. 만약 글자의 異同이 있으면 이를 통해 텍스트의 계통을 살폈고, 그밖에 朱墨點·글자수 표기 유무·결필·간기 혹은 필사기 등의 기록·장서인·보충 여부 등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적었다.

각 부류의 서적은 대체로 권수가 적은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명과 권수가 동일한 서적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刊寫 시기가 빠른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 중 가장 처음에 수록된 책 이하는 서명 대신 ‘又’라고 표기하고 있어 앞의 책과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뒤에 배치된 서적이 그 앞의 서적과 동일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테면 ‘體式與前同’과 같은 식으로 밝히되,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서적의 목록 기술이 끝나고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그 뒤에 按文을 배치하여 다른 서적과 형태 및 텍스트를 비교하거나,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해당 서적의 계통을 고증하거나, 가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그 한 예시로, 高山寺 소장 북송판본 『齊民要術』의 안문이다.

이 책을 살펴보니, 이 책은 선본으로 매우 희귀하다. 세상에 전하는 모진 간본은 오탈자가 册紙에 가득하여 대부분 잘 읽히지 않는다. 이 책으로 그것을 비교해보니, 의거하여 보정한 것이 매우 많았다. 가령 第1卷首의 “『周書』曰, 神農之時, 天雨粟.”라는 한 구절이, 이 책에서는 小字 夾注로 되어 있지만, 毛本은 大字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예전의 형식을 잃었다. 『讀書敏求記』에 실린 嘉靖 甲申 湖湘刊本에는 “周書 曰” 한 구절이 대자로, 또한 모본과 같으니, 모본이 湘本에 의거하였음을 알았다. 第

30) 梶崎順子, 1999 「瀧江抽齋編『卿雲輪困附錄』」『言語文化』 36, 63면.

5卷 「桑柘篇」의 경우, 모본은 한 장이 탈락되었지만, 이 책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 밖에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또한 많았다. 紹興 갑자년(1144)에 葛祐가 간행한 책의 後序에 “이 책은 이내 天聖연간 중 송문원 판본으로, 조정의 요인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책의 ‘通’자는 末畫이 빠져 있으니, 天聖연간의 官刊이며, 당시에 이미 희소한 책으로 여겨졌음을 알았다. 어찌 귀중하지 않겠는가?<sup>31)</sup>

위의 내용을 통해, 이 목록이 형태사항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해도, 판본학적 검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③번과 ④번 항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본문 텍스트의 비교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성립 시대나 편찬자 등에 대해 고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서적의 성립 연대나 편찬자 및 장서인의 주인 등에 대해 고증하거나,<sup>32)</sup> 후대에 위조한 宋本을 가려낸 경우도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당시 일본의 문헌학자들은 서적을 구성하는 형태적인 요소를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본문 교감이나 문헌 고증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판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적의 연원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이호 교손이 서문 첫 구절에서, 독서 전에 먼저 그 연원을 분석하여 가장 오래되거나 선

31) 『經籍訪古志』卷4, 「子部上-農家類」齊民要術零本三卷（中略）“按是書善本至稀。世所傳毛晉刊本，誤脫滿紙，殆不可快讀。以此本校之，當據以補正者甚多。如一卷首周書曰神農之時天雨粟一條，此本小書夾注，毛本大書，却失舊裁。讀書敏求記載嘉靖甲申湖湘刊本，周書曰一條大書，亦與毛本同，知毛本據湘本也。五卷桑柘篇，毛本脫一張，此本完具。其他可訂正誤謬者亦多。考紹興甲子葛祐之刊是書後序，有曰此書乃天聖中崇文院板本，非朝廷要人不可得。今此本通字闕末筆，知是天聖官刊，在當時既爲罕覯之冊，豈可不貴重乎？”

32) 한 예로 纂圖互註周易六卷(天正間鈔本 山田氏九折堂藏)의 내용을 들자면,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이 미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朱彝尊의 『經義考』와 『天祿琳瑯書目』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蓋此本不詳出何人，朱彝尊經義考載纂圖互註毛詩二十卷，引陸元輔之言曰，此書不知何人編輯。首之以毛詩舉要圖二十五觀此，則知是本不載圖者，蓋略去之也。元輔又曰，各圖或引注疏或引禮書詳注其下，攷琳瑯書目載纂圖互註周禮十二冊，稱宋陳祥道有周禮纂圖，其書已佚。此書圖說多引禮書之言，或本祥道書據此，豈纂圖本之祥道書，其重言重意本之唐宋人帖括書歟？其合編爲一書者，殆出元人。經義考載周禮附音重言重意互註十二卷條，引繆泳之言，以爲元人所輯，蓋得其實矣。”

33) 『經籍訪古志』卷6, 「集部-別集類」又(文選六臣注六十卷)（中略）“考林琅書目載明板文選數部，皆書估就袁本妄改識語僞造宋刻者，亦足見此本之佳焉。”

본을 택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과 상통한다.<sup>34)</sup> 본문 중 「纂圖互注周禮六卷」을 두고 오탈자가 많아 교감의 근거로 부족하다고 평하거나,<sup>35)</sup> 崇蘭館 소장 『춘추 경전집해』의 안문과 같이 송본 이전의 텍스트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는 내용<sup>36)</sup> 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이들이 판본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 3) 판본 감별에 대한 논의

고서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서는 고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서 간의 물리적인 차이와 위조 여부 판단은 직관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적방고지』는 서적의 형태사항을 중심으로 기술된 목록인 만큼, 내용에 반영된 판본학적 지식과 경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 이 책은 간행 연월이 없어 글자체를 살펴보니, 홍치 연간에 판각된 것으로 여겨 진다.<sup>37)</sup>
- 판식을 살펴보니, 송본에 의거한 重刻本인 것으로 의심된다.<sup>38)</sup>

위의 예문에서 간기가 없어도 판식과 글자체를 통해 감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시대별 판본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을 통해 다진 감식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스승 혹은 선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고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진 이유 중에는 이러한 점도 있으

34) 海保漁村, 『經籍訪古志』「經籍訪古志序」“讀書必先剖析其書之所淵源，擇其最古且善者而從之（下略）”

35) “此本字畫猝略，訛謬儘多，不足據以校經注異同。”

36) “以上三通俱零殘不全，而官庫所儲獨爲足本，眞爲絕世僅有之珍函也。凡皇國舊鈔裝成卷軸者，皆李唐遺本，竹帛之餘嚮僅存于今日者，其爲可貴重，亦固非南北宋槩比也。”

37) 又(爾雅)〈明弘治間刊本, 求古樓藏〉“此本不記刊板歲月, 考字體, 盖爲弘治間所刻。”

38) 爾雅翼(明刊本, 寶素堂藏)“相板式, 疑依宋本重刻者。”

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규코로텐칸을 비롯한 고서 모임에서는 함께 고서를 살펴보면서 판본학적 지식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자연스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리야 애키사이의 스승과 제자, 교유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장기간 지속하였기 때문에 고서에 대한 감별 기준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생겨 공유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고서 감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본적인 지식과 감식안 수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어떠한 내용이 전수되고 논의되어 공유되었는지 대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적방고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송본에 대한 것이다. 이는 판본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송대의 서적을 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본을 기준으로 형태와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송대 이전의 唐本 혹은 그 계통본과 이후의 元本 및 명청대의 송본 계통 혹은 영사 및 모방본을 판별하였다.

- 「貞」자가 결필되어 있고, 매 권말에 본문과 주석의 글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북송본에 따른 듯하다.<sup>39)</sup>
- 이상의 두 점은 북송본에서 근원을 취하니, 권말에 있는 본문과 주석의 글자수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0권본인 활자본은 모두 이것을 저본으로 한다.<sup>40)</sup>
- 권 중에 「慎」「樹」 등의 글자가 결필되어 있다. 그 중에 간간이 후대 사람이 補刊한 부분이 있다.<sup>41)</sup>
- 「匡」「胤」「恒」「桓」 등의 글자의 결필은 대개 송본에서 근원을 취하는 것이다.<sup>42)</sup>
- 「貞」「頃」「敬」「驚」「沅」「胤」 등의 글자는 모두 말획이 빠져 있어, 송본에 의거한 중각본임을 알 수 있으나, 판행된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 嘉慶 辛酉(1801) 간본이 있는데, 이 판본을 저본으로 한다.<sup>43)</sup>

39) 又(周易六卷)〈永正間鈔本 求古樓藏〉“貞字缺筆。每卷末記經注字數 蓋從北宋板。”

40) 又(周易九卷畧例一卷)〈文明明應間鈔本 増島氏竹蔭書屋藏〉“以上二通取源於北宋本，卷末有經注字數，可以證也。十卷本活字板皆以此爲藍本焉。”

41) 儀禮經傳通解零本一卷〈宋槧本 昌平學藏〉“卷中慎樹等字缺筆，中間有後人補刊。”

42) 爾雅注疏十一卷〈元槧本 昌平學藏〉“匡胤恒桓等字缺筆，蓋取原於宋本者。”

43) 楚辭章句十七卷〈明代重雕宋本 求古樓藏〉“貞頃敬驚沅胤等字並缺末筆，知是據宋刻重雕者，但不記刻行時月。又有清嘉慶辛酉刊本，以此本爲原。”

위의 내용을 통해, 송본 혹은 그 계통본에 대한 형태적인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결필된 글자와 본문 및 주석의 글자수 기재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필 글자로 언급된 것에는 「貞」「恒」「愼」「樹」「匡」「胤」「桓」 등이 있다. 崇蘭館 소장 『이아』 3권에는 「桓」「溝」의 결필로 남송高宗 때 補刊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44)</sup>

뿐만 아니라, 송본 특유의 글자체와 판식, 판각 상태, 먹빛, 종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획이 단정하고 굳세니 자못 구양수와 류종원의 필세가 있다. 판심 위쪽에 초서로 대소자수가 있고, 아래쪽에 각공명이 있다. 새김이 정묘하고 훌륭하며, 종이와 먹 모두 아름다우니, 확실히 송판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이다.<sup>45)</sup>
- 판각 연월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새김이 매우 정밀하니, 북송판본의 아름다움이며, 흄종 이상의 廟諱는 모두 끝획이 빠져 있다.<sup>46)</sup>
- 글자가 선명하고 깨끗하고, 종이가 견고하니, 실로 송본의 아름다움이다.<sup>47)</sup>
- 이 책을 살펴보니, 蜀大字本에 의거한 중간본으로, 李鴻本 『爾雅』와 동종이니, 그 판각은 마땅히 應永연간(1393~1427) 이전에 있었다.<sup>48)</sup>
- 이 책은 판각 연월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판식과 지질을 살펴보니, 명나라 사람이 송본을 중각한 것으로, 거의 만력연간 초일까. 卷內에 송대의 휘가 결필되어 있고, 또 「禎」자 밑 주석에 御名이라고 이르고 있으니, 곧 그것이 근원하는 바는 응당 인종 때의 간본이다.<sup>49)</sup>

송본에 비해 원본과 명본에 대해서는 언급된 횟수가 적고 내용이 그리 구체적

44) 又(爾雅三卷)〈宋槩本 崇蘭館藏〉“北宋仁宗時刻本. 體式與前本同, 但卷首郭槩注三字退在次行. 帝諱缺筆皆同前本. 間有南宋高宗時補刊, 桓溝二字缺筆, 板心有重刊重開記.”

45) 儀禮經傳通解零本一卷〈宋槩本, 昌平學藏〉“畫端頸, 頗有歐柳筆意, 板心上方草書記大小字數, 下方有刻工名氏. 銄手精良, 紙墨共佳, 信爲宋槩中最清絕者.”

46) 論語注疏解經二十卷〈北宋槩本 楓山官庫藏〉“不記版鋟年月, 然撫刻極精, 北宋槩本之佳者, 欽宗以上廟諱皆闕末筆.”

47) 又(春秋經傳集解)〈宋嘉定丙子刊本 楓山官庫藏〉“文字鮮朗, 紙質堅固, 實宋刻之佳者.”

48) 又(春秋經傳集解)〈舊板覆宋大字本〉“攷此本, 盖依蜀大字本重刊者, 與李鴻本爾雅同種, 其刻當在應永已前也.”

49) 拾遺記十卷〈明代重刊宋本, 求古樓藏〉“此本不記梓刻歲月, 考板式紙質, 盡明人重雕宋本者, 始在萬曆初年歟. 卷內宋諱闕筆, 且禎字下注云御名, 則其所原應是仁宗時刊本.”

이지 않다. 원본은 주로 특유의 글자체와 판식이 가장 큰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각본이나 체수본과 같이 간행 시기가 元代가 아닌 경우에도 판별해내는 경우도 있어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한 감식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명본은 대체로 각수명과 마멸된 정도로 명대에 간각 혹은 보충되었음을 판단하고 있다.<sup>51)</sup> 다만 弘治연간(1488~1506)에 간행된 『이아』를 보면, 명나라 각 시기 간본의 글자체 차이에 대한 감식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2)</sup>

『경적방고지』에는 중국본 뿐만 아니라 조선본 역시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활자본인 경우에는 판종에 명시하고 있는데, 일본 고활자본과 마찬가지로 활자본만의 특징을 통해 구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본에 대한 복각본에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서발문이나 내사기, 장서인 등을 통해 구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각 시대와 지역마다 가지는 판본의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활자본과 그 복각본, 목판본에 대해서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능화문이 있는 黃檗色 표지와 五針眼과 같은 조선본만의 특징에 대해서도

50) 『경적방고지』 중 元本에 대해 언급된 예는 다음과 같다.

“宣德六年申亥五月日都事金致明跋。攷板式，疑覆刻元板者。”(音注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七十卷<宣德六年, 朝鮮國刊本>)

“不記梓行年月，攷字體恐是至正間刊本。”(詩集傳音釋二十卷<元槩本 昌平學藏>)

“考板式，疑重修元板者。”(文獻通考三百四十八卷<明初刊本, 求古樓藏>)

“紙刻精良，元槩之佳者。”(新編古今事文類聚前集六十卷 後集五十卷 繢集二十八卷 別集三十二卷 新集三十六卷 外集十五卷<元槩本, 奈須氏久昌院藏>)

“考板式，蓋明初閩中依元板重雕者。”(纂圖互注南華真經十卷<明初刊本, 求古樓藏>)

51) 明本에 대해 언급된 예는 다음과 같다.

“板心有雕工名氏中多有明人補刊。”(儀禮十七卷<宋槩單經本, 昌平學藏>)

“明代補刊亦甚多，補刊板心上方有校正名氏，下方有刻工名氏。”(儀禮圖十七卷<宋槩本, 昌平學藏>)

“此本板頗刑缺，中多有明代補刊。板式一與昌平學所藏樂書同，惜所存不多耳。”(禮書零本三卷<宋槩本, 寶素堂藏>)

“元大定四年刻十三經之一，明正德補刊，所謂十行本。此係吉漢官舊藏，後歸求古樓。昌平學所藏亦與此同種，但較此本補刊轉多。”(春秋公羊傳注疏二十八卷<元槩本, 求古樓藏>)

“不記刊行歲月，紙刻陋劣，蓋明代重修本也。”(增廣注釋音辯唐柳先生集四十三卷 別集二卷 外集二卷 附錄一卷<元槩本, 求古樓藏>)

52) 又(爾雅三卷)<明弘治間刊本 求古樓藏> “此本不記刊板歲月，考字體，蓋為弘治間所刻。”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일정한 판식이 없는 필사본은 주로 지질과 글자체를 가지고도 추정하기도 한다.

- 지질은 정밀하고 견고하며, 필적은 沈迺하고, 장정은 卷子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 오백년 전의 舊本이다.<sup>53)</sup>
- 지질과 字樣을 살펴보니, 마땅히 이는 팔백년 전의 초본이다.<sup>54)</sup>
- 지질과 먹색을 살펴보니, 마땅히 이는 사백년 전의 구초본이다.<sup>55)</sup>

위의 예문을 통해서, 보다 직관이 필요한 재질의 시대적 차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經籍訪古志』와 楊守敬의 覓書

근대 이후 중국과 일본의 학술 및 문화 교류는 明治 13년 3월말(光緒 6, 1880)에 주일청국공사관이 설치되면서 초대 공사인 何如璋을 비롯한 청나라 외교단의 來日이 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서구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는 한편, 고전에 대한 가치는 경시되면서, 대량의 고서들이 시중에서 할값에 유통되고 있었다. 에도시대에도 나가사키[長崎]를 통하여 중국 서적이 수입되고 있었으나, 메이지 이후가 되면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증가한다.<sup>56)</sup>

이 시기에 시마다 간(島田翰, 1879~1915)은 陸心源의 頤宋樓藏書를 그가 재직하고 있던 靜嘉堂文庫에서 매입하는 것을 도왔다. 또한 중국의 정치가이자 법

53) 孝經孔氏傳一卷〈弘安二年鈔卷子本, 福山城主阿部氏藏〉“紙質精堅, 筆蹟沈迺, 裝成卷子, 實爲五百年前之舊本。”

54) 史記零本一卷〈舊鈔卷子本, 京師〉“考紙質字樣, 當是八百年前鈔本。”

55) 施氏孫子講義零本一卷〈舊鈔卷子本〉“考紙質墨色, 當四百年外舊鈔。”

56) 王寶平, 2005 『清代中日學術交流の研究』, 汲古書院, 411면.

률가인 董康(1867~1947)은 신해혁명 발생 후 일본에 건너가 유학하면서 시마다 간 및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 등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에 남아 있던 중국의 일실본을 번각 및 영인하거나 서적을 수집하기도 하였다.<sup>57)</sup>

양수경은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메이지 13년 何如璋으로부터 수행원으로서의 채용을 권유 받아 도쿄에 갔지만, 인사문제로 인한 불화로 인해 수행원 임명은 보류된 채 체류하게 되었다. 이후 黎庶昌이 2대 공사로 취임하면서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장서가이자, 금석·서예·지리·문헌학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는데, 귀국하는 1884년까지 일본에서 체류한 4년간, 각 분야에서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필담을 통하여, 서예 방면에서는 구사카베 메이가쿠(日下部鳴鶴, 1838~1922)·이와야 이치로쿠(巖谷一六, 1834~1905)·마쓰다 셋카(松田雪柯, 1823~1881),<sup>58)</sup> 출판 방면에서는 고서 및 비첩 등 번각 사업과 관련하여 에도에서 대대로 판각을 해오던 3대 및 4대 기무라 가헤이 [木村嘉平]와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기무라 가헤이는 여서창의 뜻에 따라 양수경이 편찬한『古逸叢書』의 출판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쓴『日本訪書志緣起』에는 일본의 장서가 중 특히 모리 릿시·무코야마 고손(向山黃村, 1826~1897)·시마다 시게타카(島田重禮, 1838~1898)와 특히 친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보인다.

『隣蘇老人年譜』의 임오년(1882)조에는 그가 일본에 처음 도착해서 거리를 다니다가 우연히 고서점에서 중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한적을 보고 놀랐다고 한 기록이 있다.<sup>60)</sup> 따라서 양수경이 고서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 간

57) 芳村弘道, 『董康と近代日中の漢籍交流』, 제29회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 斯道文庫 강연회 자료집(2016.10.28).

58) 杉村邦彥(고인덕 옮김), 1999 「근대 일본과 중국의 서도 교류: 양수경과 마쓰다 셋카·이와야 이치로쿠·쿠사카베 네가쿠의 교류」『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3, 176-208면.

59) 陳接, 2000 「明治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交流に関する一考察—楊守敬と彌り師木村嘉平との関係をめぐって—」『江戸・明治期の日中文化交流』, 浙江大學日本文化研究所.

60) 楊守敬, 1988 「隣蘇老人年譜」『楊守敬集』 1, 湖北人民出版社, 18면 “先是余初到日本, 遊於市上, 觀書店中書多所未見者, 雖不能購, 而心識之. 幸所携漢魏六朝碑版亦多日本人未見,

이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고서를 입수하기 위해, 중국에서 가져온 漢魏六朝의 石碑版本과 古錢, 古印으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의 고서 입수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경적방고지』이다. 이것의 초본을 구한 후, 참고해가면서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입수하였는데, 그 중에는 『경적방고지』에 수록되지 않은 것도 수백 점이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sup>61)</sup>

『日本訪書志緣起』에서 밝힌 양수경이 고서를 수집한 경험과 방법을 보면, 먼저 서점을 돌면서 판목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면 최대한 구입하였고, 또한 장서가의 목록을 비교하여 판본의 異同 및 희소성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일본 고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sup>62)</sup>

양수경과 모리 릿시의 교유에 대해서는 『淸客筆談』의 내용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리 릿시는 양수경에게 고서 수집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장서를 양수경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매각하지 않은 경우, 양수경은 사람을 써서 필사하였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리 릿시는 양수경에게 일본의 고증학 연구 성과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판본학적 조사 및 교감 방법과 고대서적제도사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처럼 모리 릿시가 양수경에게 협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이지 시기 사회 전체가 급속히 서양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전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를 필요에 의해 이용하거나 경계하기도 하였다.<sup>63)</sup>

한편, 양수경은 1884년 입수 서적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학문 활동에 전념하였다. 『水經』에 註疏 작업을 시작하였고, 복각 사업에 자신의 장서를 제공하였다. 그의 장서를 저본으로 출판된 것 중에는 조선 활자본 『山谷詩集注』의 외집 17권 및 별집 2권, 『東國史略』도 있었다.

又古錢古印爲日本人所美，以有易無，遂盈筐篋，及黎公有刻書之議，則日日物色之，又得森立之經籍訪古志抄本。其時立之尚存，乃按目索之，其能購者，不惜重值，遂已十得八九，且有爲立之所不載者數百種，大抵醫書類爲多，小學類次之。”

61) 위와 동일.

62) 陳捷, 2003 앞의 책, 448면.

63) 이상의 내용은 위의 책, 489-502면에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신해혁명 발발 후 급히 상해로 피신하면서 미처 장서를 옮기지 못하면서, 일부 장서가 분실되었고, 그 이후에도 생활고와 중국 내에서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서점에 매각하거나, 李盛鐸(1859~1934) 등과 같은 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sup>64)</sup> 1914년 완성된 『수경주소』를 출판하기 위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경으로 이주하면서 장서도 함께 옮겨졌으나, 이듬 해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장서들은 정부에서 사들여 松坡圖書館과 壽安宮에 분장되었다. 이후 수안궁에 있던 것은 다시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으로, 송파도서관에 있던 것은 國立北京圖書館으로 옮겨졌다. 이 중 국립고궁박물원 소장본 15,000여 책은 그의 호를 붙여 觀海堂藏書라고 한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과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의 귀중본은 양수경의 장서가 큰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北京·上海·湖北·四川 등지에 산재하고 있다.<sup>65)</sup> 장서는 그가 생존하고 있던 당시부터 이미 산일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장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완전한 목록은 남아 있지 않다. 현재로선 국립고궁박물원에서 편찬한 『故宮所藏觀海堂書目』이 그 면모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목록에는 서명·권책수·편저자와 함께 판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본초본·일본구초본부터 고활자본 및 목판본·화각본뿐만 아니라 『尙書傳』 13권과 같이 足利學校 소장본으로 보이는 '日本足利本'도 보인다.<sup>66)</sup>

이처럼 양수경의 고문헌 수집을 통해 중국에서 일실되었지만 일본에는 전존하고 있던 고서들을 다시 중국으로 옮겨 와 청대 고증학자들의 고전적 및 그 기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서의 소장처가 이를 계기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키사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에도 말기 고증학 연구 성과를 흡수하여 『古逸叢書』·『日本訪書誌』·『留眞譜』 및 『續編』·『日本訪書誌補』 등의 문헌학적 성과를 남겼다. 이는 이후 중국의 일본 문헌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4) 이성탁과 관련된 내용은 高橋智, 앞의 책, 205-209면에 상술되어 있다.

65) 陳捷, 2003 앞의 책, 532-542면.

66) 嚴靈峯 編輯, 1978 「故宮所藏觀海堂書目」『書目類編』 38, 成文出版社.

## 5. 결론

일본은 고대부터 학문을 담당하였던 박사가를 비롯하여 중세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禪僧과 교역상인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서적들을 수집해왔고, 이 서적들은 18세기까지도 상당 부분 전존하고 있었다. 에도 후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판본학적 연구는 고대부터 당시까지 전존하고 있던 고서와 이를 수집하는 장서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도시대에는 평화의 지속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장서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요시다 고톤은 치밀한 문헌 고증을 통한 연구 방법을 주창하였고, 그것을 가리야 에키사이가 계승하여 규코로텐칸이라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고서 모임을 결성하였다.

현재 규코로텐칸을 비롯한 고서 모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서 모임의 성과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적방고지』를 살펴보면, 서적의 형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함께 조사되었고, 경우에 따라 교감과 문헌 고증의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본의 판식과 글자체, 텍스트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발행 시대나 계통적인 부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때 활용된 판본학적 지식과 재질에 대한 감식안은 직관적인 판단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모임에서 논의를 거쳐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경적방고지』는 에도 후기까지의 장서 문화와 고증학에 기반한 판본학 연구 성과의 집성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서양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에 대한 경시 풍조가 생겨나 많은 고서들이 서점에 매각되었다. 한편, 중국과의 수교로 일본에 방문한 중국인들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자국에서 이미 일실된 고서들을 보고, 구입하거나 일본인 지인의 협조를 통해 양도 혹은 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여 다시 중국에 가져갔다. 양수경도 이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는 『경적방고지』의 초본을 입수하여 고서 수집에 참고하였다. 이렇게 입수한 고서들은 귀국할 때 함께 가져갔으며, 그 중 대다수는 중국과 대만에 현존하고 있다.

가리야 에키사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판본학 연구는 그간의 장서 문화와 고증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증적인 문헌 연구 방법과 그 성과는 현재까지 발전 및 계승되어 서지학 조사 연구에 토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양수경을 통하여 다시 중국으로 옮겨져 고서의 소재지가 재편성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규코로텐칸은 동아시아 문헌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규코로텐칸(求古樓展觀), 가리야 에키사이(狩谷核齋), 모리 릿시  
(森立之), 楊守敬, 經籍訪古志, 中日書籍交流, 에도 후기 문헌학

투고일(2017. 9. 4), 심사시작일(2017. 9. 6), 심사완료일(2017. 9. 16)

〈Abstract〉

The Activity and influence of Bibliographic meeting,  
*Kyu-ko-ro-ten-kan*

– The Beginning of Bibliography in Japan in the 19C –

Lee Eury \*

*Kyu-ko-ro-ten-kan*(求古樓展觀) is the first Bibliographical researching group in earnest in Japan in the 19<sup>th</sup> Century. Japan had been collecting books from China and Korea by people who are scholars, zen priests(禪僧), merchants, and so on from 9<sup>th</sup> Century at least, and they had been preserved. But it was already disappeared in China.

Bibliographical researching in late Edo period is effected Chinese Philology and it is based on rare books that was preserved until that time. In the late 17<sup>th</sup> century, Japan was started to research philology effected on Chinese academy. The typical example of philological result is 『*Sichi-Kei-Mou-Si-Kou-Bun*(七經孟子考文)』 that was written by Yamanoi Tei(山井鼎, ?~1728). Yamanoi compared text of 8 kinds of confucianism books each other in Ashikaga School where preseved many old books from middle age in Japan by his teacher, Ogyu Sorai(荻生徂徠, 1666~1728) who is a typical scholar in Japan. this was effected on 『*Sip-Sam-Gyeong-Ju-So-Gyo-Gam-Gi*(十三經注疏校勘記)』 written by Ruan Yuan(阮元, 1764~1849). The main purpose of Philology is tracing of an original text. So it is necessary to analysis of book in terms of form.

*Kyu-ko-ro-ten-kan* was held by Kariya Ekisai(狩谷棟齋, 1774~1835) who established foundation of Japanese bibliography. He held the meeting for researching rare books once a month by inviting other book collectors, and they should be discuss the books. But it is not able to know the activities of this group, because of lack of related record. But 『*Kei-se-ki-hou-ko-sil*(經籍訪古志)』 written by Mori Ritsi(森立之) etc. provides basis to inference how they analysis books bibliographically. According to this, they analysed books not only by bibliographical method but also by comparing text. So it means they

---

\* Researcher, National Museum of Korea.

use bibliographical method for philological researching.

In the Meiji period *Yang Shoujing*(楊守敬) had been collected much of rare books by referring to 『Kei-se-ki-hou-ko-si』, when he stayed in Japan for 4 years. And He had been come away these books to China. And now his collections are in China and Taiwan. So the activity of *Kyu-ko-ro-ten-kan*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istory of bibliography in the Eastern Asia.

**Key Words :** *Kyu-ko-ro-den-kan*(求古樓展觀), Kariya Ekisai(狩谷核齋), Mori Ritsi(森立之),  
*Yang Shoujing*(楊守敬), *Kei-se-ki-hou-ko-si*(經籍訪古志), exchanging books  
between China and Japan, Philology in the late Edo period, Beginning  
of Japanese Bibliography